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5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977호 1판 (음력 3월 5일)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 제60회 호남예술제 개막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일보 주최 제60회 호남예술제 발레 부문에 참가한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화려한 춤을 선보이고 있다.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호남예술제는 오는 5월 28일까지 성대하게 치러진다. ▶관련기사 1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흥 비자금 수사에 건설업계 '휘청' 금호산업 인수경쟁 '승자의 저주' 우려

긴급진단
광주 경제 위기의 1주일

중흥건설, 올 분양계획 전면조정…1000여곳 협력업체 대책 시급

금호산업, 지역업체끼리 경쟁에 인수금액 상승 '채권단 배불리기'

광주·전남 경제에 '건설사발(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금호산업 인수전을 둘러싼 지역 기업 간의 충돌과 중흥건설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겹치면서 이들 회사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입는가 하면 지역경제 전반에도 도미노현상이 우려된다.

22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검찰은 이달 초 자금담당 부사장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20일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중흥건설은 올해 지역 기반 건설업체 가운데 최초로 자산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인한 파장이 커 보인다. 당장 중흥건설은 올해 분양계획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 와중에 대단지를 분양하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흥건설은 최근 3년간 전국에 3만5000여 가구를 공급하며 3년 연속 전국자체공급량 3위를 기록했다. 현재 전국 27개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일 평균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수만 8000여명에 이른다. 여기에 협력업체 수만 1000여곳, 소속 근로자는 5만여명에 달한다.

지난 수년간 광주·전남지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대주건설과 남양건설, 금광기업, 삼능건설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해체되면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아왔다.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 종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차지하는 비중도 큰 광주·전남지역 특성상 건설업체가 휘청거리면 밑바닥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의 생업과 수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금호산업 인수 본입찰을 앞두고 사실상 지역기업 간의 경쟁이 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호반건설의 금호산업 인수전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금호산업 지분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인수금액 1조원도 문제없다"고 발언한 뒤 변동성도 커졌다.

치열한 인수 경쟁에 따라 인수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역엔 실익이 없이 채권단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도한 매입금액은 결국 누가 이기더라도 '승자의 저주'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게 투자업계의 설명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채권단에게만 이익을 주는 무한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민과 시민단체, 경제계의 뜻에 동감한다"며 "금호와 호반, 두 기업이 상생의 길로 갔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 탓으로 해석된다.

한편 호반건설과 금호산업, 중흥건설은 지난해 국내 도급순위에서 각각 15·20·52위를 차지해 호남 업체들중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7년간 바닷물 사용권 요구 막무가내 한빛원전 ▶6면

2015 상하이모터쇼 가보니 ▶14면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추진

이마트 광주점·주차장 자리 최소 20층·200실 이상

광주신세계가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의 제안을 받아 광주신세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여서 어느 때보다 특급호텔 건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 이마트 광주점과 주차장 자리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 건립은 3개월 전 윤장현 광주시장이 신세계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이나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중국관광객을 수용하고 KTX개통에 맞춰 쇼핑객 등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빨대효과'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2019년 세계수영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상에 호텔과 면세점 그리고 이마트와 주차장 시설은 모두 지하층에 위치하도록 하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급호텔은 광주 지역 최대규모로 추진하는 만큼 지하 7층, 지상 20층에 205실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신세계와 호텔 건립에 대해 사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현재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특급호텔 건립계획이 결정되면 호텔 준공 시기는 2019년 세계수영대회 개최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약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호텔건립에 대해 그룹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 예상부지인 이마트 광주점과 이미 확보한 주차장 자리는 상업지구로, 특급호텔을 세우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특급호텔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예상 위치도

세월호 누운채 통째로 인양한다

9월부터 현장작업 시작

마무리 1년 이상 걸릴 듯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현장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작업이 시작된 후 선체 인양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12~18개월이 소요되고 비용은 1000억~1500억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인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기술 검토 결과 실종자 유실·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크레인과 플로팅 도크 장비를 이용, 선체를 누운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을 최선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선체 인양 업체 선정 후 3개월간 세부 인양설계와 준비작업을 병행, 가능한 한 9월 중에 현장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체 인양에는 현장 조건에 따라 1000억~1500억원,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인양기간이 6개월 연장될 때마다 비용이 약 5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5th 가슴으로 하나되는 아리따운 여정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4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 념 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AMOREPACIFIC CORPORATION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55CHU